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태신자 작성주일(3주)

오늘은 태신자 작성 주일로 지킵니다.

3.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일시 : 2024년 10월 22일(화) 오전 11시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및 교육관
 안내 : 박제연 집사 (문의 : 010-3138-6854)

4. 후보 1면 사진 제보를 받습니다.

후보 표지에 사용할 메인 성도님들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저작권 문제가 민감해서 금주부터는 주사랑교회 후보에 수록되는 이미지를 성도님들의 사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상을 지나시다가 은혜 되고 감동 되는 사진을 사연과 함께 카카오톡 단독에 올려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5. 2024년 다니엘21일기도회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 21일(목) 매일 저녁 7:30~10:00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어린이는 교육관)

6. 어린이 예배

매주 주일 오후 1~2시 어린이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7. 청소년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청소년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8. 2024년 10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8.29 ~ 9.29)

10.05(토) 오수빈야미 10.13(일) 전진우야미 10.16(수) 이재야야미
 10.23(화) 한효성 성도 10.27(일) 김막동 권사(-9.25)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10/20	태신자 작성주일(3)
10/22	아하브코업 장기모임(주사랑교회) 경기서지방회 교역자 부부수련회 (안면도 휴양림 오전 9시 출발)
10/27	종교개혁주일 선교헌신의 주일 추수감사절 성전 장식 시작
11/01	다니엘 21일 기도회 (11/1~21일) 찾날빛이 일석예배 (성전예식)
11/03	태신자 초청의 주간(1)
11/05	아하브코업 장기모임(주사랑교회)
11/10	태신자 초청의 주간(2)
11/11	북한선교위원회 전체 모임
11/17	추수감사주일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시각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10/20 임명숙 집사
- 10/27 김혜숙 권사
- 11/03 정애자 권사
- 11/10 박제연 집사
- 11/17 이광근 안집사
- 11/24 임명자 집사
- 12/01 임명숙 집사



주사랑 7권 42호 | 2024년 10월 20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스물두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태신자 작성주일(3)** 인도: 집례자

※ 목 도 삼상 2:1~3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287장 다 같 이
(예수 앞에 나오면)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서교독 No.57 시편 130편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272장 다 같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대표기도 임명숙 집사
(중고등부 교육부장)

성경봉독 사무엘상 1:9-18 (구약 408)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영혼을 쏟는 한나의 기도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430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희 어린이)

※ 축 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급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한승훈 임명순 / 장차라이육성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호 박재연 이광근 임명순 임명숙 임명자 장애자
한승훈 / 아가를 이육성 장차라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하락

감사헌금 : 고예순 김혜숙(심방) 이광근 박재연(사내) 전복순 장애자 김복동

월삭감사 : 한승훈 임명순(청소년부)

구역헌금 : 김혜숙 박재연 임명순

선교헌금 : 한승훈 임명순

건축헌금 : 한승훈 임명순

후원헌금 : 세한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국내선교(오주교후흥스쿨)



해외선교(모로코)



해외선교(타지키스탄)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통일선교 비전기도회

오후 1:0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15:23-38 (구 588)

말씀제목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요건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히브리서 2:1-18 (신 354)

말씀제목 천지의 창조자, 구원의 창조자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경배와 찬양** 구역별 찬양

성경봉독 왕상 13:20-34 (구 537)

대표기도 말 은 이

말씀제목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열왕기하 19:1-19 (구 595)

말씀제목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요건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20일 일 왕하 15:23-38 안환 성공과 실패 요건

21일 월 왕하 16:1-20 상환을 넘어 주를 선택하라

22일 화 왕하 17:1-23 북아리엘의 좌와 멸망

23일 수 왕하 17:24-41 배교로 마는 삶이 잔재다

24일 목 왕하 18:1-16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삶

25일 금 왕하 18:17-37 새끼 소환하심 말씀

26일 토 왕하 19:1-19 왕의 상환에서 도난 신앙

27일 일 왕하 19:20-37 하느님 기도와 야비엘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⑦ 포로기 동안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축을 위해 노력했었지만, 이방 민족들에게 끈질긴 훼방을 받아왔다. 그러나 바벨론 고레스와 느부갓네살의 때에 좌절되었던 성전 건축이 바사의 다리오의 때에 재건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속해있었던 나라를 위해 지속적으로 섬겨왔던 이 방법 때문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을 위해 섬겨왔던 방법은?(스 6:10)

호른 사람 ()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하더라

⑧ 성전 건축의 특별한 사명을 훼방하기 위해 나타난 무리들은 누구인가요? (느 2:10)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 양을 잡으니

⑨ 느헤미아의 지도하에 한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북쪽 성벽 공사의 시작 기준인 곳은 어디인가요?(느 3:1-5)

¹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대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³()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⑩ 서쪽 성벽 공사의 시작 기준은 어디인가요?(느 3:6-13)

⁶()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¹³()은 하늘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⑪ 남쪽 성벽 공사의 기준은 어디인가요?(느 3:14-15)

¹⁴()은 벵하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¹⁵()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 거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⑫ 동쪽 성벽 공사의 기준은 어디인가요?(느 3:16-32)

²⁶그 때에 느디뎨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³²성 모퉁이 성루에서 ()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환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차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4-42주 / 에스라 6장 ~ 느헤미야 3장

① 포로기 동안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축을 위해 노렸을 했지만, 이방 민족들에게 끈질긴 훼방을 받아왔다. 그러나 바벨론 고레스와 느부갓네살의 때에 좌절되었던 성전 건축이 바사의 다리오의 때에 재건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속해있었던 나라를 위해 지속적으로 섬겨왔던 이 방법 때문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을 위해 섬겨왔던 방법은?(스 6:10)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의 생명을 위하여 ()하게 하라

② 성전 재건축 이후 유대인들이 지켜 회복시킨 절기는 무엇인가요? (스 6:19-20)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 양을 잡으니

③ 80년 만에 이루어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인솔한 인물은?(스 7:1, 5, 6, 10)

¹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리아의 아들이요 아시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⁵아비수야의 십삼대 손이요 비드하스의 십사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십오대 손이요 ()의 십육대 손이라 ⁶이 ()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더니...¹⁰()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 결심하였으되라

④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포로자 중에 포함되지 않은 지파는?(스 8:15)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 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 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⑤ 느헤미야를 통한 제3차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진 시기는 B.C.444년 3~4월경 일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느 2:1)
()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⑥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왔던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현상과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는 어떻게 나타났나요?(느 2:3~5)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 하옵소서

신앙의 향기 - 조선 선교의 선각자들(2) - 토마스 Thomas, Robert Jermain(1839~1866)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최난한:崔蘭軒) 선교사는 1839년 9월 7일 영국 웨일스의 리아다에서 출생했습니다. 1863년 5월 런던대학교 대학과정과 신학과정을 모두 마치고 회중교회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런던선교회에 소속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되어, 1863년 12월 부인 캐롤라인과 상하이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864년 부인과 사별합니다. 1865년 1월부터 산둥성 지푸의 해관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다가, 한국인 천주교 신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 천주교 신자로부터 천주교 박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일엄슨(Alexander Williamson)을 만나면서 <조선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조선 선교>를 결심합니다. 제1차 조선 선교를 위해 1865년 9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권서인(勸書人) 자격으로 한문성경을 들고 황해도 백령도에 3개월간 머물면서 성경을 판매하는 등 선교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말>을 배우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1866년 런던선교회 선교사로 다시 임명받아 베이징에 파견된 조선의 동지사 일행을 만난 후, 미국 상선인 제너럴셔먼호가 천진에서 조선으로 출항하게 됩니다. 제너럴셔먼호의 항해 목적은 <무역>이었고, 승선자는 고작 서양인 5명과 동양인 19명이었습니다. 1866년 8월 황해도 황주목 삼점방 송산리 앞바다에 정박했는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 일행은 지방 관리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지방관리들이 승선해 조선의 방문 목적과 승선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조사해 정부에 보고합니다. 제너럴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포구에 정박하게 되고,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소년 홍신길 등과 마을 이장 지달해 등 9명에게 한글성경과 전도책자를 나눠 주십니다. 제너럴셔먼호는 신장포구, 두로도, 양각도, 한사정, 황강정, 방수성 등을 경유해 대동강 상류로 계속 항진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들을 감시하던 순시 대장 이익현을 납치해 제너럴셔먼호에 억류하므로 군사적 충돌이 생깁니다. 다음날 퇴역 장교 박춘권이 이익현을 구출했고, 이어 제너럴셔먼호에서 대포와 소총을 쏘며 교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선인 1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조선군 반격이 심해지자 불리함을 알게 된 제너럴셔먼호가 퇴각하지만, 모래톱에 걸려 좌초되고 맙니다. 이는 여름철 홍수로 대동강의 수심이 깊어져 배가 올라올 때는 좋았지만, 배가 내려갈 무렵에는 물이 빠져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평양 군사들은 강물에 둘러싸인 배를 직접 공격하기 어렵게 되자 화공법(火攻), 즉 여러 개의 작은 배에 마른 나뭇가지와 기름 등의 인화물질을 섞고 불을 붙여 모래톱에 얹혀 있는 배에 충돌시킴으로써 제너럴셔먼호는 불에 타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승선자 일부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조선군 총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강에 뛰어들어 승선자들은 조선 군인들의 칼에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강가에 늘어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졌고, 옷에 불이 붙은 채 밖으로 뛰어 내렸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강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병사에게 마지막 성경책을 주며 “받아달라”고 해서 그 병사는 그를 처형하기를 주저했지만, 마침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겨우 27세. 결국 제너럴셔먼호의 승선 인원 24명 전원이 살해되었습니다.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1107	제사장 엘리	삼상 1~4장
찬송가찬 546장.....	다 같이	1069	사사 삼손	삿 13-16장
대표기도	말은 이	1067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삼상 1~8장
성경봉독왕상 13: 20~ 34.....	말은 이	1043	사울의 통치 (~BC 1011)	삼상 10~31장
말씀인도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	말은 이	1011	다윗의 통치 (~BC 971)	삼하2~왕상2
합심기도	다 같이	971	솔로몬의 통치(~BC 931)	왕상 1~11장
헌금기도찬 516장.....	말은 이	931	복조 1대 왕 여로보암(BC 913)	왕상 11장
주기도문	다 같이	931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상 12장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벤엘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벤엘의 선지자 집에서 음식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든 일이 죽음을 초래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하와에게 찾아와 간교한 거짓말로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뱀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창 3:4~5).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령의 존귀함을 얻고 살지만(창 2:7),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창 3:19). 벤엘의 선지자는 고의적으로 유다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여 그에 따른 징벌 여부를 보고 하나님의 신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20~28).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벤엘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벤엘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20).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직후에 임한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셨고(21), ‘네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22). 조상의 묘실에 묻힌다는 것은 의인이 죽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마지막 보상 중 하나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벤엘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것은 유다 선지자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선택하여 행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이고, 순종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마 6:10).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요 19:30).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의’로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갈 2:16).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의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한 후에 벤엘의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를 위해 나귀를 제공합니다(23). 유다의 선지자를 속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것이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길을 떠난 유다의 선지자는 가던 길에 사자에게 물려죽었고,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귀와 시체를 잡아먹지 않고 가만히 곁에 서 있습니다(24).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유다의 선지자를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실행된 것임을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둘째,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29~32).

말씀을 어긴 선지자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사자가 시체를 먹거나 나귀를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자신의 종도 죽이시며, 왕도 버리시며(삼상 15:26), 제사장도 치십니다. 그 선언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는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33~34).

벤엘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 계시를 전하는 자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변했지만,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붙잡아 죽이려 했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벤엘의 늙은 선지자의 계략과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벤엘과 단에서 드러지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와 제사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여로보암 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죄에서 돌아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는 아들의 죽음과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지켜봤으면서도 전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보다 지금 당장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자신의 왕권이 악화될 걱정이 더 컸기에, 벤엘과 단에서의 금송아지 제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불순종한 왕에게 기다리는 것은 가문의 멸절과 죽음뿐입니다. 왕이든 선지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 결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 공동체를 질책하며, 잘못을 바로 잡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예리한 날선 검처럼 왜곡된 가치관을 도려내기도하고, 허탄한 생각을 제거하기도 하며,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죽어서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선포합니다(사 40:8). 유다로부터 와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사사 사무엘은 교만한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책망했습니다(삼상 15:23).

하나님은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중한 삶의 태도를 갖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교회는 살아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공동체는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